

배추 재배, 더위·가뭄 걱정 'NO'

농진청, 글루탐산 등 더위에 강한 물질 발굴·효과 입증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더위와 가뭄에도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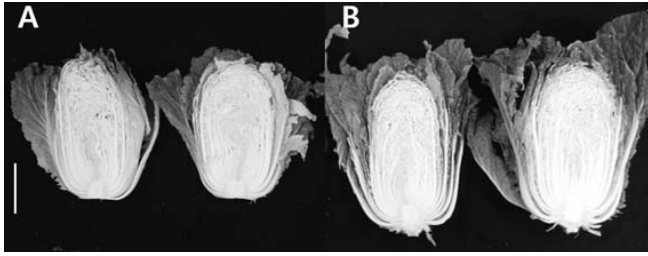
배추는 20도(C) 정도의 서늘한 기후를 좋아해 여름철에는 대부분 고랭지 노지에서 재배된다. 이런 이유로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큰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고온과 가뭄이 주시기를 강수량 증가로 배추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6~22% 줄었다. 특히 2016년에는 생산량이 평년 대비 17% 감소하며 1포기당 가격이 8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농진청은 고랭지 여름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폭염과 가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알맞은 물질을 탐색했다. 연구진은 덥고 건조한 조건(낮 30도, 밤 25도, 토양 수분

20%)을 정밀 구현한 뒤, 고온 피해 경감 후보 물질 중 광합성 속도, 항산화 효소 활성, 지렁이 상태 등을 고려해 글루탐산 살리실산 등을 선발했다. 그리고 6월 중순 아주심기를 마친 고랭지 배추 농가에서 고온 발생 시점인 7월 중순부터 1주일 간격으로 각각의 물질을 4회에 걸쳐 단독, 또는 섞어 뿌렸다.

그 결과, 글루탐산을 10ppm 농도로 단독 처리한 실험구는 아무 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보다 수량이 18% 이상 증가하고, 영양생리 장애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는 영양생리 장애로 잎이 무너지는 붕소 결핍이 20%, 속잎 괴입 증상은 28.7% 발생했다.

글루탐산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식물 대사활동에 중요한 필수 아미노



일반 재배 배추(A)와 글루탐산 배추(B)의 크기 비교.

산의 전구체(전 단계의 물질)이다. 최근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증진 효과로 주목받고 있다.

농진청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글루탐산의 환경 스트레스 경감 효과와 약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강원도 삼척 등 여름 배추 재배 농가에서 이 시기 상 대용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가에서 글루탐산 이용하려면 고온·건조한 시기 전후,

글루탐산 10ppm(글루탐산 2g/물 200L)을 1주일 간격으로 4회 정도 잎에 직접 뿌려주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우문 채소과장은 "배추에 글루탐산을 뿌리는 기술은 활용하기 쉽고 약제 방제 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며 "이상기상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이주현 전북조달청장

지역 우수제품 업체 방문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9일 우수조달물품 '다기능 미장벽' 생산업체인 (주)비전세라믹(대표 김광문)을 방문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비전세라믹의 '다기능 미장벽'은 기초물질, 기능성물질, 보조첨가제 물질 등을 계량 혼합해 항균기능, 단열성, 압축강도 및 내마모성을 우수한 성능으로 강화시킨 제품이다.

이주현 청장은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지역 중소기업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치유농업의 산업화... 자문위원단 발족 한국형 치유농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산업화를 위한 '치유농업 자문위원단 발족식'이 열린 29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허태웅 청장과 자문위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난지원금 1인 25~30만원... 소상공 최대 900만원”

당정, 33조 규모 추경 편성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저소득층에 추가 지원
캐시백 예산 1조원↑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4가지 큰 틀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 15~16조원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중 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집행규제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는 희망회복자금도 지원한다. 지원금 단가 등은 피해 규모,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설계할 방침이다.

당정간 이견이 있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키로 했다.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 범위와 관련 "실무 논의 과정에서 계속 전 국민을 요청했다"며 "고위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20%는 제외하며 캐시백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위 300만명을 더 두텁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야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픽스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전국민에 대해 요청하는 당내 의견도 있다. 정책 의의충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선과 관련해, "대략 소득으로는 1억원 정도"라며 "전체 2100만 가구 중에도 상위 20%인 440만 가구 정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전해하면서도 "1인 가구가 얼마를 받느냐 30만원



서부산림청, 소금처리 덩굴제거 시범사업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지난 29일 함평군의 국유림에서 침입종의 효과적인 제거방법 도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금처리 덩굴제거 시범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고, 산림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금처리 덩굴제거 작업방법은 침입종의 주두부를 반 정도 제거한 후 주두부의 굵기에 따라 소금(20g/100g)을 달기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날 소금처리 방제매뉴얼에 의거 적절하게 추진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온과 잦은 호우 등으로 인한 작업장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유림영림단 및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60여명과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한 후 현장에 맞는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조준규 청장은 "덩굴제거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기안전공사, 내달부터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시동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ke.sgo.kr)은 ▲민간 전기안전 점검결과 입력·조회 ▲전기설비 검사·점검

이력정보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전기재해 통계 및 전기안전 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다.

국가 전기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상 기자



감자재배 농가에서 일손돕기 29일 정읍시 신의면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과 직원들이 감자재배 농가에서 일손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중기 혁신마우처 63곳 선정

전북중기청, 선정결과 마케팅 분야 홍보지원이 가장 많아
업종별로 식료품제조업 14건·매출액 적은 기업도 선정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근영)는 2021년 중소기업 혁신마우처사업에 63개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마우처 사업은 전북도내 기업으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구성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프로그램 선정결과를 보면 마케팅 분야의 홍보지원(26건, 29.9%)이 가장 많았고 기술지원 분야의 시제품 제작지원(22건, 25.3%) 컨설팅 분야의 경영기술컨설팅(12건, 13.8%)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현황으로는 식료품제조업 분

아가 가장 많은 비율(14건, 22.2%)을 차지했으며, 매출액 부문에 있어서 10억 원 이하인 기업도 41.2%를 차지해, 매출액이 낮은 기업도 사업계획이 우수하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내 주력산업과 규제자유특구 산업분야를 연계한 자동차 분야 및 탄소 용·복합 산업 분야의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지원했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광역자치체 단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특화형 기업지원 정책을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저축은행 맞춤형상품 연계업무 가능

전북은행-저축은행중앙회
연계대출 업무협약 체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9일 전북은행 본점 9층 회의실에서 저축은행중앙회와 연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은행거래가 어렵거나 추가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저신용 고액에게 저축은행의 맞춤형상품 연계업무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전북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적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한국 은행장, 저축은행중앙회 박재식 회장을 비롯한 양측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저축은행중앙회는 2016년 우리은행과 연계대출 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2017년 수



협은행 2018년 대구은행과의 연계대출 협약을 맺었고, 이번엔 전북은행과 4번째 연계대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은 "은행을 찾는 고객들에게 폭넓은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자 저축은행중앙회와 연계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기관과 협업모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수도건설사업 설계 지적중첩도 작성

LX-수자원공사, 협약 체결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 위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등 협력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K-water)는 29일 LX공사 본사에서 공간정보 분야 기술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수도건설 사업의 효율적 설계를 위한 지적중첩도 작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공간정보체계 구축 ▲기관간 시스템 상호연계 추진 ▲지적·공간정보 교육 및 기술교류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지적중첩도를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착공 및 용지 보상을 통해 공정기간을 6~8개월 이상 단축이 예상된다. /김윤상 기자



또한 용지 보상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어 공공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LX공사 최승욱 공간정보본부장은 "공간정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Digital SOC로서 국가 핵심기반"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스마트한 지적측량·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